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필요성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지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외에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양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 추진 경과

지난 '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며 물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수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이에 안동·나주('08년 12월), 충주('09년 2월), 부산('09년 3월) 등시에 선도 사업 착공, 올해 2월 5일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했다. 또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 기획단(국상급)을 추진본부(장관급)로 확대 거편,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강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 보고대회를 지난 4월 27일에 개최, 5월 7일~19일 지역설명회, 5월 11일~15일 관계부처 협의, 5월 14일~22일 전문가 자문, 5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6월 8일 인문브리핑을 통해 대외발표를 실시했으며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6월 송순경 4대강 살리기 수질·환경 기능용 강화하기 위해 추진본부에 수질전담 부서(국장급) 신설, 사업의 원활한 발주와 시행을 위해 지방 국토청의 노상·집행 인력을 보강했다.

▶ 향후 계획

본 사업은 행정절차, 입찰 등을 거쳐 '09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6월에는 하천 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6~9월은 환경영향평가·문화저조시, 입찰공고·기본설계, 7월부터는 보상·지장물 이설, 10월에는 업체선정 및 사업착공에 들어간다.

총사업비의 경우 '10년 예산편성 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09.9월)시 최종 확정되며 본 사업에는 16.9조원(국토부: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0.5조원)이며 직접연계사업으로는 5.3조원(국토부: 선진강·주요지류 1.7조원,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0.2조원,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물량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국토부	준설	5.7억㎡	0.5	4.4	0.5	0.3
	보	16개	3	8	3	2
	생다하천	537km	127	213	124	73
	세방보관	377km	75	214	71	17
	댐, 조절지	5개	-	3	-	2
	자진거결	1,206km	189	549	248	220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87개	12	31	30	14
환경부	수질개선(홍안사리)	353개	106	124	99	24

* 본사업은 불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